

# 대한민국 체육 100년 역사의 주인공 제100회 전국체육대회

10월 4일부터 일주일 간 진행된 제100회 전국체육대회(이하 전국체전)가 1920년 1회 개최되었던 서울에서 다시 열리며 그 의미를 빛냈다. 대한민국 체육 100년 역사의 주인공 전국체전 테니스에서는 서울이 2년 만에 경기도를 제치고 종합우승을 차지했다.

글\_박준용 기자, 김진건 기자 사진\_테니스코리아

## 일반부 단체전

### [남자]당진시청, 2연패 달성

권순우(CJ제일제당 후원)와 임용규 등 호화멤버를 거느린 충남대표 당진시청이 결승에서 대구대표 대구시청을 종합성적 2-0으로 꺾고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. 최근철 당진시청 감독은 “주위에서 멤버가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부담감이 있었다. 하지만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준비할 때부터 긴장감을 가졌다”라면서 “순우와 용규 등 모든 선수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.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신 당진시청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린다”고 소감을 밝혔다.



2연패를 달성한 충남대표 당진시청 테니스단



2연패를 이룬 인천시청 테니스단

### [여자]인천시청, 2연패 성공

한나래와 김다빈을 앞세운 디펜딩 챔피언 인천대표 인천시청이 경기선발을 종합성적 2-0으로 물리치고 2연패에 성공했다. 김정배 인천시청 감독은 “선수들이 전국체전 100주년 기념으로 금메달을 안겨 준 것에 정말로 고맙다”라면서 “2연패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. 또 적극적으로 팀을 도와주는 인천시청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”고 전했다.

## [남자]

### 남지성, 고교 졸업 후 대회 첫 금메달

국가대표 복식 파트너끼리 맞붙으며 관심을 모은 남자일반부 개인전 결승에서는 세종대표 남지성(세종시청)이 대전대표 송민규(KDB산업은행)를 6-4 6-1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. 남지성은 “성인이 된 후 전국체전 첫 금메달이다. 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는데 잘 극복했다”라면서 “완벽한 경기력은 아니었지만 금메달을 따서 기쁘고 뿌듯하다. 다시 투어에 도전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전했다.



금메달 남지성(오른쪽)과 은메달 송민규

## 일반부 개인전

### [여자]

### 장수정, 통산 5번째 금메달

여자일반부 개인전 결승에서는 대구대표 장수정(대구시청)이 인천대표 김채리(인천시청)를 6-2 6-4로 따돌리고 2년 만이자 자신의 통산 5번째 전국체전 금메달을 획득했다. 장수정은 “작년에 잘하지 못해 올해 꼭 금메달을 따고 싶은 마음이 커 부담감이 있었지만 잘 이겨냈다”고 밝혔다.



금메달 장수정(오른쪽)과 은메달 김채리



5연패를 달성한 서울선발



9연패를 달성한 명지대 테니스단

### 대학부 단체전

#### [남자]서울선발, 대회 5연패

건국대와 한국체대의 서울선발이 울산대표 울산대를 종합성적 2-0으로 제압하고 대회 5연패를 이뤘다. 김영준 건국대 감독은 "5연패 중 3연패를 한국체대와 함께 달성했다. 다른 대학들과 전력이 비슷해 많은 준비를 했고 울컥할 정도로 선수들이 정말 잘해줬다"라면서 "치열한 경쟁을 뚫고 금메달을 따 어느 때보다 뜻깊다. 선수들이 대견하고 자랑스럽다"고 밝혔다.

#### [여자]명지대, 9연패 금자탑 위업

경기대표로 나선 전통의 강호 명지대가 서울대표 한국체대에게 치열한 접전 끝에 종합성적 2-1로 꺾고 대회 9연패라는 전무후무한 업적을 남겼다. 신순호 명지대 감독은 "그동안 선배들이 쌓은 업적 때문에 선수들이 부담감이 컸을 텐데 잘 극복했고 큰 산을 넘었다는 점에서 고맙다"라면서 "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시는 어머니께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뜻대로 이뤄졌다. 경기 전 선수들에게 우리의 무기는 '할 수 있다'는 정신력이라고 말했고 선수들이 힘든 상황을 잘 이겨냈다. 내년 퇴직을 앞두고 선수들이 더 열심히 해 준 것 같다"라며 기쁨을 나타냈다.

### 대학부 개인전

#### [남자]임성택, 전국체전 첫 금메달

충남대표 임성택(순천향대)이 강원대표 심성빈(한림대)을 6-2 6-2로 제압하고 정상에 올랐다. 임성택은 "전국체전 첫 금메달이라 기쁘다.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"고 전했다.



금메달 임성택(오른쪽) 은메달 심성빈



금메달 박은영(오른쪽) 은메달 임은지

#### [여자]대학 입학 후 첫 출전한 박은영, 깜짝 금메달

경기대표로 나선 박은영(명지대)이 제주대표 임은지(한국체대)를 7-5 6-1로 꺾고 금메달을 획득했다. 박은영은 "4학년 선배 언니가 몸이 안 좋아 대신 뛰게 됐는데 대회 1주일 전부터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"라면서 "내년에 정년퇴직하시는 신순호 감독님께 좋은 선물을 드린 것 같아 뿌듯하다. 많은 가르침 주신 감독님께 감사드립니다. 또 대회기간 동안 경기도 스포츠과학센터의 도움을 받아 컨디션을 잘 유지할 수 있었다"고 밝혔다.

### 고등부 단체전

#### [남자]강원, 경기의 앞길 가로막으며 유일한 금메달

강원 대표로 나선 양구고가 종합우승 2연패를 노리던 경기(경기선발) 앞길을 가로막았다. 결승에서 강원은 경기를 상대로 3-1로 꺾고 금메달을 획득했다. 강원은 남고부 단체전에서 유일한 금메달을 획득하며 종합성적 3위에 올랐다.



유일한 금메달을 강원예 안긴 양구고

### 대학부 개인전

#### [남자]박용준, 고등부 개인전 첫 우승

경기 대표로 출전한 박용준이 남고부 개인전 결승에서 김영빈(전북)을 맞아 6-1 6-1로 승리를 거두며 개인전 첫 우승을 차지했다. 박용준은 "첫 우승을 거두어 기분이 너무 좋다. 상대의 몸 상태가 안 좋기도 했지만 오늘 원하는 대로 경기가 잘 풀렸다. 앞으로 투어에서도 활약하는 선수로 발전하고 싶다"라고 우승 소감을 전했다.



고등부 단체전 4연속 우승을 해낸 중앙여고

#### [여자]서울, 여자 고등부 단체전 4연속 우승

여고부 '절대강자' 중앙여고가 대표로 나선 서울이 경남대표 창원명지고를 종합성적 3-0으로 꺾고 4연속 우승을 차지했다. 이번 금메달로 서울의 종합우승 마침표를 찍은 중앙여고의 최준철 감독(가장 왼쪽)은 "서울에서 열리며 100회를 맞이한 전국체전이었던 만큼 부담감도 컸지만 선수들이 잘 이겨내 주었다. 선수들을 비롯해 도움을 주신 관계자분들에게 감사 드린다. 종합우승에 일조할 수 있어서 기쁘다"라고 소감을 전했다.



첫 우승을 차지한 박용준



개인전 금메달을 획득한 문정

#### [여자]문정, 개인전 금메달 획득

여고부 개인전 결승에서 문정(서울)이 김은서(경기)를 상대로 6-3 7-5로 승리를 거두며 금메달을 획득했다. 문정은 "긴장을 많이 해서 원하는 플레이를 마음껏 펼치지는 못했지만 우승을 거둬 기쁘다. 상대 선수가 실수할 때 기회를 잘 살렸던 점이 경기에 좋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다"고 전했다.